



중소기업, 신사업 특허출원 늘려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

- TOP500 기업의 출원, 존속특허,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4배, 80.9배 높아 -
-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특허활동을 기업단위로 분석한 ‘지식재산 스코어보드’ 구축 -

’24년 우리나라에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상위 500개社(이하 TOP500 기업)를 분석한 결과, 최근 대기업은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P500 기업의 출원 및 존속특허* 건수는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4배, 80.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500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는 171.2건, 전체 출원기업 평균 출원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됐다. 존속특허는 TOP500 기업은 841.8건, 전체출원 기업 평균은 10.4건으로 나타났다.

* TOP500 기업들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하여 권리가 존속중인 특허(2024.12.31. 기준)

<TOP500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기 다른 특허활동 전략 보여>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4년 한 해 동안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TOP500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TOP500 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기술분야와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연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OP500 기업의 12.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특허는 해당기업의 주력 사업분야와 79.8%(대기업 66.1%)가 일치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4년에는 중소기업이 주력 사업분야에 특허출원한 비율이 64.2%(대기업 62.9%)로 나타난 바, 최근 중소기업은 주력 사업분야 외의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존속특허와 ’24년 특허출원을 여전히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확보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20.5%, 중견기업 14.9%, 중소기업 12.5%, 외국기업 52.1%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출원·존속특허 중 국가R&D에 의한 출원·존속특허 비율 :

(출원) 중소기업 15.0%, 대기업 1.0%, (존속특허) 중소기업 15.9%, 대기업 1.3%

한편, 외국기업이 TOP500 기업수의 과반수(266社, 52.0%)를 초과하는 반면, 우리기업은 TOP500 출원건수의 72.7%(전체 87,470건중 63,589건)를 차지하며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5%의 기업이 TOP500에 진입('24년 119社) 및 이탈('24년 124社)하고 있어, 특허를 선점하려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의 기업단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그동안 기업의 특허활동 분석은 기술이나 산업 전반의 동향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별기업 단위로 특허활동을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개별기업의 특허출원과 존속특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스코어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현재까지 구축된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기업들의 특허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한 기초통계

향후 지식재산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개별기업 단위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타 지표*들과 연계하여 기업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KOSPI200(한국거래소), K-수출스타 500(산업부), 200대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등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여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국내 특허정보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500대 특허출원기업 특허활동 동향 분석」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 발간물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460)
		담당자	사무관	김민균 (042-481-5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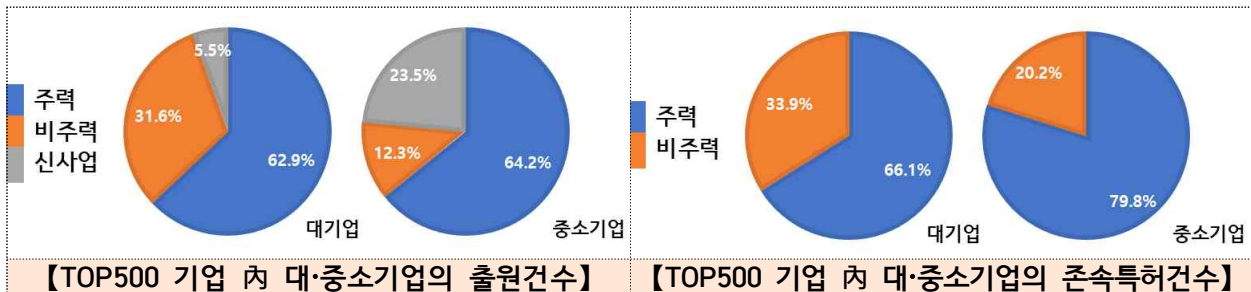
□ TOP500 기업과 전체 출원기업의 출원건수·존속특허건수

	출원		존속특허	
	전체 건수	평균 건수	전체 건수	평균 건수
TOP500	87,470	171.2	422,596	841.8
전체 출원기업	177,302	4.7	963,345	10.4

□ 기업유형별 분포현황

구분	기업유형	기업 수		기업 비중	
		'23년	'24년	'23년	'24년
TOP500	대기업	98	105	19.0%	20.5%
	중견기업	76	76	14.7%	14.9%
	중소기업	70	64	13.6%	12.5%
	외국기업	272	266	52.7%	52.1%

□ TOP500 기업 內 대·중소기업의 출원건수·존속특허건수 비중



□ 기업유형별 출원건수 비중

구분	기업유형	출원 건수		출원 비중	
		'23년	'24년	'23년	'24년
TOP500	대기업	48,592	55,010	59.2%	62.9%
	중견기업	5,477	5,382	6.7%	6.2%
	중소기업	3,233	3,197	3.9%	3.7%
	외국기업	24,822	23,881	30.2%	27.3%
	합계	82,124	87,470	100.0%	100.0%

□ TOP100 및 TOP500기업의 신규 진입·이탈 현황

구분	기업유형	신규진입('23→'24)		기업유형	이탈('23→'24)	
		기업 수	기업 비중		기업 수	기업 비중
TOP500	대기업	15	12.6%	대기업	8	6.5%
	중견기업	18	15.1%	중견기업	18	14.5%
	중소기업	30	25.2%	중소기업	36	29.0%
	외국기업	56	47.1%	외국기업	62	50.0%
	합계	119	100.0%	합계	124	100.0%